

水産經營學의 對象規定에 관한 試論的 考察

孔 龍 植

A Tentative Paper on the Object of Study in Fisheries Management

Ryong-Sik Khong

目 次

- | | |
|--------------------|---------------------------|
| 一. 序 論 | 三. 經營學의 研究對象에 대한 吟味 |
| 二. 水産業과 水産經營의 概念規定 | 四. 研究對象의 抽象化와 水産經營學의 研究對象 |
| (1) 水産業의 概念規定 | 五. 結 論 |
| (2) 水産經營의 概念規定 | |

一. 序 論

學問의 研究對象에 대한 論議 혹은 問題意識은 學問研究의 中心的 課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學問을 體系의인 知識의 集合體라 定義할 때, 學問은 確實하고 또한 根據있는 認識으로서의 知識을 認識하는 主觀과 認識될 對象인 客觀과 兩者간의 認識關係에 의해 이룩된다. 또한 오늘날 學問의 分化·發展이 그 對象規定을 둘러싼 論議가 重要한 契機였음을 생각할 때 學問의 이름에 의해 認識될 對象인 研究對象이 學問의 內容을 規定하고 있음은 쉽게 理解된다. 더구나 經營學에 있어선 1912年 독일에서 始作된 「私經濟學 方法論爭」에서 對象論議가 「研究方法」의 이름에 의해 論爭의 中心的 課題가 되었을 뿐 아니라 오늘에 있어서도 그 研究對象이 「企業」이나? 혹은 「經營」이나? 에 대한 結論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事情에서 經營學에 있어서의 研究對象 혹은 認識될 對象에 관한 論議는 格別한 意義를 가지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研究對象規定에 대한 문제는 水産經營學에 있어서도 例外일 수 없다. 「水産經營學」을 獨立된 學問分野로 認識하려는 努力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선 1961年 釜山水産大學 水産經濟學科가 水産經營學科로의 改編에 의해 그 制度的 裝置가 마련된 데 求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教育制度上的 裝置가 바로 水産經營學의 「學」的 定立 내지 「學」的 體系의 確立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고, 水産經營에 관한 知識이 實踐的 有意義성과 「學問體系化」의 必要性을 느끼게 된 現實的 基盤이 造成되었음을 意味하는 것으로 理解하고 싶다. 이것은 水産經營學科의 設置以前에 우리는 水産經營學에 관한 한 그 研究對象, 研究方法, 研究領域등에 의해 嚴格히 論議된 知識의 體系로서 水産經營學을 볼 수 없었다는 事實에 緣由한다. 1951年 岡本(OKAMOTO) 教授는 그의 著書인 「水産經濟學」에서 水産經營學을 「水産經濟에 관한 水産經濟學 以外の 諸研究의 一領域으로 個別水産經濟를

위해 그 水産經營實踐上 遵守해야 할 諸基準을 發見·定立하고 이들을 理論的으로 說明하며 系統化하여 提示하는 것을 그 特殊任務로 하는 研究이다」¹⁾라고 規定함으로써 水産經濟學과 水産經營學의 學問的 關聯性에 대해 概然的으로 叙述하고 있을뿐 그 學問的 體系에 대해 하등 論한 바 없다. 그리고 「水産經營學」이란 이름에 의한 最初의 單行本이라 할 수 있는 伊豆川=三島=大海原(IZUKAWA=MIZIMA=OHNABARA)의 共著인 「水産經營學」(恆星社厚生閣, 1965)에서 伊豆川教授는 「水産經營學은 社會科學으로서 經營學의 特殊部門을 구성한다」²⁾라고 서술함으로써 水産經營學과 經營學과의 關係를 「特殊」와 「一般」의 關係로 規定함과 동시에 「水産經營學은 水産企業主가 營爲하는 漁業企業體를 對象으로 한다.」³⁾라고 規定하고 있다. 또한 張設鎬 教授에 의하면 著書 「水産經營學」에서 「水産經營學이 水産業이라고 하는 水産業體의 經營經濟를 오로지 그의 研究對象으로」⁴⁾하는 學問이라 말하고 있다. 이에서 우리는 水産經營學의 研究對象을 岡本教授는 個別水産經營, 伊豆川教授는 漁業企業體, 그리고 張設鎬教授는 水産業體의 經營經濟라 規定함으로써 各己 달리 理解·把握하고 있다. 이와 같이 研究對象에 대한 差異 즉 研究對象에 대하여 理解하는 方法의 差는 바로 그 研究方法를 달리하게 마련이다. 특히 經營學에 있어서 研究對象에 대한 把握의 差는 對象으로 하는 것의 指導原理를 달리 理解하기 때문에 여기에 對象과 指導原理를 同時的으로 滿足시키기 위한 試圖가 앞서 말한 바 獨逸에서 볼 수 있었던 「私經濟學方法論爭(第一次方法論爭)」 이후 오늘날까지 持續하고 있는 여러 차례의 方法論爭이라 하겠다. 第一次方法論爭이 研究對象을 企業으로 하고 이 對象과 因果論的 方法과 目的論的 方法과의 結合如何에 따라 私經濟學이 理論科學이나 技術論이나 하는 것이 重要한 問題點이었다. 第二次方法論爭은 選擇原理와 配列原理의 組合에 의해 企業을 研究對象으로 하는 經驗·實證的 經營經濟學(技術論學派와 理論學派)과 經營을 研究對象으로 하는 規範的 經營經濟學間에 展開됨을 볼 수 있었다. 第三次方法論爭은 經營經濟學이 純粹理論科學인가? 應用科學인가? 라는 主張間에 展開된 論爭에 의해 特徵지워지는데, 여기에 우리는 研究對象이 從來와는 달리 經驗的 存在로서의 企業이 아닌 理論的으로 構築된 精緻한 企業<모델>이 登場하게 된다.⁵⁾ 그리고 第四次方法論爭은 一般的으로 企業의 經濟行動 혹은 企業에 있어서의 生産關係를 研究對象을 限定하는 理論學派와, 企業經營의 意思決定過程(process)을 中心으로 이에 收斂될 廣範한 經營知識과 情報의 收集過程(process)을 對象으로 한 應用(技術)學派, 그리고 아직 具體的인 內容이나 處理節次의 展開엔 이르지 못하고 있으나 理性的 存在로서의 人間의 將來에 관계되는 全體認識 내지 目標設定과 設定方法을 問題로 하며, 새로운 規範의 設定을 中心으로 하는 規範論學派 사이에 經營經濟學의 研究對象과 方法을 둘러싼 論議에 그 特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獨逸에 있어서 經營學의 研究方法를 둘러싼 論爭現象은 그 研究方法의 如何가 研究對象에 대한 論議와의 關係에서 展開되고 있다는 데 經營學研究의 本質的 特質을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經營學이 學問으

1) 岡本清造, 『水産經濟學』, 恆星社厚生閣, 1951, p. 85.

2) 伊豆川淺吉·三島康雄·大海原宏, 『水産經營學』, 恆星社厚生閣, 1966, p. 1.

3) 伊豆川·三島·大海原, 前掲書, p. 29.

4) 張設鎬, 『水産經營學』親學社, 1966, p. 44.

5) E. Gutenberg가 近代經濟學의 分析用具을 利用하여 演繹的으로 理論體系를 構築한 經營經濟學의 研究對象은 從來의 理論學派가 經驗的·因果的·歸納的으로 把握하려는 企業과는 學의 性格을 달리하는 것으로 理解하고 이를 理論的 精緻企業<모델>이라 하였다.

水産經營學의 對象規定에 관한 試論的 考察

로서 本來的으로 어떻게 定立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換言하면 經營學이란 이름에 의해 論議되어 온 對象을 科學(Wissenschaft)의 對象으로서의 妥當性 如何에 대한 知的 努力의 結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現象은 經營學이 學問으로서의 歷史가 統一的인 學問體系가 確立되기에 日淺한 事情에 基因한 點도 看過할 수 없을 것이다.

위와 같은 經營學에 대한 事情을 水産經營學에 照明했을 때 우리는 더욱 學問으로서의 歷史와 研究의 體系性에서 뒤 떨어짐을 認識하지 않을 수 없음을 水産經營學에 뜻을 둔 研究者가 共通으로 느끼는 바일 것이며, 이에 대한 努力 내지 論議가 없었다는 事實에서 理解된다. 여기에 하나의 試論으로서 水産經營學의 研究對象이란 問題에 焦點을 맞춤으로서 定立될 水産經營學의 像을 摸索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二. 水産業과 水産經營의 概念規定

社會科學으로서의 經營學이 그 對象을 企業으로 規定하든 經營으로 規定하든, 觀察 혹은 分析의 直接的 對象은 經營現象으로 具體化되는 企業 내지 經營인 것이다. 社會現象으로서의 經營現象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內容規定은 分明하지 않으나 企業 내지 經營을 商品生産으로서의 財貨 혹은 用役의 生産과 關聯시킬 때, 個別經濟體에 의한 目的追求過程에서 이루어 지는 人·物的 現象의 統一的 總體라 理解하고자 한다. 이러한 個別經濟體의 目的追求活動인 現象은 構成員에 의해 이루어 지는 社會的·經濟的 活動이나, 「經營者」의 合目的的·合理的 意志活動에 의해 指導될 때 나타나는 現象으로 人間의 社會的 關係가 主가 되어 이룩되고 있다는 意味에서 社會現象으로서의 經營現象이 規定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現象은 基底에서 規定하고 있는 것이 産業이며, 水産經營學에 있어선 水産業이 아닐 수 없다. 이 水産業의 基底위에 「水産經營」⁶⁾이 形成되는 바 「水産經營」을 어떻게 파악하느냐가 水産經營學의 性格을 規定하는 關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水産經營學의 研究對象을 論議하기 앞서 水産業과 水産經營을 概念지우는 意義을 찾고자 한다.

(1) 水産業의 概念規定

비록 水産經濟學의 見地에서라 하더라도 水産業을 學問的 立場에서 그것도 社會科學의 研究對象이란 立場에서 岡本教授는 그의 著書(前掲, 「水産經濟學」)에서 대단히 有用한 概念規定을 試圖하고 있다. 그는 「水産經濟研究를 적어도 하나의 專門學科으로서 學問的立場에서 進行시키기 위해선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固有의 研究對象으로 하고 또한 어떠한 問題를 取扱하는가 하는 點, 거기에 外의 研究對象과는 어떤 關係를 가지고 있는가 라는 點을 미리 明確히 定하지 않으면 그 研究를 專門적으로 發展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⁷⁾라고 말함으로써 水産經濟學的 觀點일지언정 「社會科學的 水産業」의 規定을 試圖하고 있으며, 이러한 立場은 專門科學으로서 確立을 期約하는 水産經營學에의 適用可能性을 또한 認定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研究對象의 規定 내지 一般的 定義는 ① 廣大無邊하

6) 여기에선 「水産經營」이라 할 때는, 經營學에서 그 對象 論議에 있어서의 「企業」 혹은 「經營」을 總括하는 概念으로 把握하고자 한다.

7) 岡本, 前掲書, pp. 9~10.

고 複雜한 總體가운데서 지금 우리들이 問題로 삼으려는 特定事物의 範域을 限定하고 他 事物로 부터 區別하는 區域을 確定지우는 外延的 規定, ② 外延的으로 規定된 一定事物에 대한 그 內容을 限定·明示하는 內包的 規定, 그리고 ③ 外延的·內包的으로 規定된 것을 研究하려는 觀點에서 意義 있는 것으로 認定되는 基本的 特徵인 “特徵의 明示“하는 方法에 의해 水産業을 定義할 必要性을 指摘하고 있다.⁸⁾ 이러한 岡本教授의 定義規定方法은 ①이 他産業과의 關係에서 産業에서 차지하는 水産業의 産業的 位置를 規定하려는 것이고, ②는 水産業을 他産業과 區別하는 標識에 대한 規定으로 ①과 더불어 水産業의 蓋然的 概念規定을 形成하는 것이라 하겠다. ③은 學問의 對象으로 水産業 즉 認識對象으로서의 水産業을 規定하려는 것이 岡本教授의 認識態度라 할 수 있다. 특히 ④은 岡本教授가 指摘하는 바 水産經濟學이란 學問을 前提로 한 것으로 經濟學的 水産業의 概念規定이라고 할 수 있으며, 經濟活動을 前提로 이에 學問的 意義를 부여하려는 概念規定이라 하겠다. 그리고 水産經營活動이 個別經濟體에 의한 水産經濟活動을 떠나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岡本教授에 의거한 水産業의 概念規定을 考察하는 水産經營學的 宜當性을 여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岡本教授에 따르면 外延的 規定으로서 水産業은 水界를 生産의 基礎的 條件으로 하는 原始産業이라 定義하고 있다. 이것은 産業을 一, 二, 三次産業으로 分類하는 通例의인 Colin G. Clark의 産業分類方法을 基盤으로 하고 있으나, 産業이란 發達된 社會的 分業組織과 生産物—商品—交換組織과 前提로 社會的 分業組織下에서 그 生産物을 商品으로 生産하는 生産活動의 諸部類의 하나이나, 自然과 人間사이의 物質代謝活動을 營爲하는 産業活動 가운데 自然에 가까운 側에 位置하는데, 이 自然이 다름아닌 水界이다. 이와 같이 水界를 生産活動의 基礎條件으로 하는 産業으로서 水産業의 産業上의 位置를 規定하고 있다.⁹⁾

다음 內包的 規定은 外延的 規定에 의한 水産業概念에 가장 適合한 産業을 選定하여 이를 水産業의 本體的 要素로 하고, 이와 不可分의 關係에 있는 産業도 또한 水産業을 形成한다는 立場을 取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自然에 가장 가깝고 自然的인 採取的 生産活動인 漁業을 水産業의 本體로 水産資源의 自然的 維持限度를 克服하며 水界資源의 利用·開發을 實體로 하는 水産養殖業과, 水界資源에 商品適性을 賦與·增進시키는 加工活動과 이를 內容으로 하는 水産製造業등은 水産業의 本體的 要素인 漁業과 密接不可分의 關係에 있는 것으로 水産業을 形成하는 內包的 要素이며, 이들 三者에 의해 內包的인 水産業을 概念지우고 있다.¹⁰⁾ 이러한 水産業의 概念規定은 自然과 人間사이의 物質的 代謝活動이 社會的 分業組織을 前提로 하고 이 分業組織에 의한 生産活動이 바로 商品生産活動으로서의 水産業을 形成하는 것이라 規定하고 있다. 岡本教授는 이와 같은 自身の 水産業概念을 「그 技術的 側面에서가 아니고 社會的, 經濟的 側面에서 捕捉하여 意義를 부여 하고 있을 뿐 아니라……漁業, 水産養殖業, 水産製造業을 包含하여 規定함으로써……三位一體의인 統一性을 明示하고」있는 것으로 理解하고 있다.¹¹⁾ 그런데 産業이 生産事業으로서 社會·經濟的 意味를 가진 概念이나, 技術的 側面을 度外視한 概念일 수 없다. 왜냐하면 生産事業 그 自體가 技術適用을 前提로 한 人間

8) 岡本, 前掲書, pp. 11~12.

9) 岡本, 前掲書, pp. 12~18.

10) 岡本, 前掲書, pp. 18~24.

11) 岡本, 前掲書, p. 24.

水産經營學의 對象規定에 관한 試論的 考察

의 生産的 行爲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前提로 하고 있다는 意味는 行爲者(事業者)가 一定한 歷史的·社會的 狀況에 대하여 商品生産으로서 有意義한 行爲過程을 選擇하는 意味關聯下에서 産業을 規定하고자 할 때, 技術的 側面은 社會的·經濟的 有意義性 如否에 의해 選擇되기 때문에 産業은 技術的 側面에서가 아니고 우선 社會的, 經濟的 側面에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우선적이라는데 岡本教授의 概念規定에 대하는 態度가 省察되는 바이다.

以上에서 본 外延的·內包的인 水産業의 概念規定 以外에 水産業의 本體인 漁業에 焦點을 照明하여 그 基本的 諸特徵을 現在의 技術, 經濟, 社會的 發展段階에서 現代의 代表的 産業인 工業과의 比較에 의해 水産經濟學의 研究를 위한 特徵을 把握함으로써 「特徵의 明示」에 의한 水産業의 概念規定을 岡本教授는 模索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諸標識에 의한 水産業의 特質로서 岡本教授는 ① 自然的 諸條件에 基因한 生産의 不確實性, 不安定性, 危險性이 比較的 크다. ② 生産物이 腐敗·變質·損傷하기 쉽고 商品適性이 顯著히 劣等하다는 點을 들고 있다. ①의 特質이 生産活動上의 技術的 特質이던 ②가 商品流通上의 特質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러한 特質이 水産業으로 하여금 發展이 늦고 總産業 가운데 낮은 産業의 地位를 甘受케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技術的, 經濟的, 社會的으로 不利한 諸條件을 克服하기 위한 基盤의 造成·發展이 크게 要請되고 있으며, 그리고 水産經濟研究의 必要性이 바로 이 點에 있음을 岡本教授는 論하고 있다.¹²⁾

위에서 본 바 水産業의 概念規定 가운데 外延的·內包的 規定은 經驗的으로 흔히 把握되는 概念이다. 또한 水産業의 特質 역시 經驗的으로 把握되는 것이나, 資本主義經濟體制에 있어서 水産業이 그 劣性的 特質을 克服함으로써 有利하게 確立할 産業으로서의 地位를 確保하기 위한 必要條件으로서 生産技術的, 商品流通的 特質의 改善을 把握하고, 水産經濟研究의 必要性의 規範性을 理解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認識態度는 因果論的 接近方法이라기 보다는 規範的 接近方法에 의한 水産經濟 즉 工業的 意味의 近代의 水産經濟의 像을 想定하고 있다. 이를 위해 現實的으로 가장 必要한 것이 生産技術과 商品流通上의 合理化란 觀點에서 選定된 標識이 위에서 말한 두개의 水産業의 特質인 것으로 이러한 點에서 보아 岡本教授가 理解하려는 水産經濟는 規範經濟的 水産經濟이며, 이 觀點에서 水産業의 特質에 의해 把握된 水産業은 認識對象으로서의 水産業의 概念規定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우리는 水界를 生産活動의 基本的 條件으로 一次産業인 漁業(狹義의 水産業)을 本體로 密接不可分의 關係에 있는 水産養殖業과 水産製造業을 包括하는 廣義의 水産業이 經驗的으로 把握되고, 또한 水界經濟研究必要上 生産技術的 그리고 商品流通上의 劣性을 特質로 한 規範經濟的 意味에서의 認識對象인 水産業이 把握된다. 그러나 우리가 水産經營學에서 理解하고자 하는 水産業은 水産企業이 그 指導原理인 營利性을 具現하는 過程에서 日常 經驗하는 水産業이다. 이러한 水産業은 위에서 말한 外延的, 內包的 概念은 물론 劣性的인 水産業의 特質도 이를 恒常 劣性으로서만 理解될 것이 아니라 營利實踐上 優性的으로 捕捉되고 있음은 우리가 또한 經驗하는 事實이다. 그리고 水産業은 漁業을 本體로서 理解하는 한 勞動集約的 産業으로서의 水産業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換言하면 水産業을 事實 그대로 理解하기 위해선 規範的인 把握보다는 經驗的인 把握이 切實히 要求된다. 이러한 水産業의 概念은 生産技術的 내지 商品流通上의 劣性的 特質을 克服해야 할 規範

12) 岡本, 前掲書, pp. 24~32.

13) 張設鏞, 前掲書, pp. 25~42.

的인 것으로 規定할 것이 아니라, 비록 經濟行爲過程에서 克服된다는 것이 合理的 行爲로서 是認되어야 할 것이나, 個別水産經濟體가 指導原理에 의한 實踐過程에서 必要에 의해 克服된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劣性的 特質이 優性的으로 作用될 수 있다는 觀點에서의 特質에 대한 理解가 必要하다.

여기에서 水産業이란 外延의으로 水界를 生産의 基礎條件으로 하는 一次産業이며 內包的으로는 漁業(狹義의 水産業)을 本體로 水産養殖業, 水産製造業과 密接不可缺의 連關의 一體를 形成(廣義의 水産業)하며 水界의 動植物資源의 利用·開發에 있어서 自然依存的 性向이 큰 漁業의 特質을 가진 社會的 分業組織에 의한 營利的 生産活動이라 定義하고자 한다.

(2) 水産經營의 概念規定

水産經營學이 「水産經營을 研究하는 專門科學」이라 할 때 「水産經營」이 무엇인가에 대한 解答은 바로 水産經營學의 性格을 規定하는 第一段階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水産經營에 대한 諸說을 보면, 첫째 張設鎬教授는 「水産經營이란 水産業이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水産資源을 목적대상으로 하여 조달, 생산, 판매등 일련의 모든 활동을 계속하여 통일적으로 영위하는 조직적인 관계이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그리고 水産經營을 ① 法律에 의해 個人漁業者에 의한 經營水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한 組合經營, 商法 및 기타 법령의 規定에 의한 會社經營으로 ② 經營目的에 의해 營利經營, 非營利經營으로, ③ 經營者의 性格에 의해 單獨 혹은 獨裁制經營과 多數 혹은 合議制經營으로, ④ 經營規模에 의해 大, 中, 小規模經營으로, ⑤ 技術의 特性에 의해 集約經營과 粗放經營으로, ⑥ 業種에 따라 漁業經營, 養殖業經營, 水産製造業經營 등으로 區分하되 水産經營의 中心을 漁業經營에 求하고, 特性으로 危險性, 移動性, 中斷性, 不確實性, 不規則性등을 規定하고 있다.¹⁴⁾

그리고 岡本教授는 우선 水産經濟를 水産業이라는 特定産業部門에 있어서의 生産諸關係 그리고 이를 基礎로 한 流通上, 金融上의 諸關係의 總體라 定義한 다음 이러한 水産經濟는 두개의 意味를 갖는다고 한다. 그 하나가 收入·支出을 豫定하고 그 調整을 피하는 一定秩序를 갖고 있는 組織을 말하며 이를 個別水産經濟 혹은 水産經營이라 定義하고, 다른 하나는 個別水産經濟와는 相異한 總體水産經濟로서의 水産經濟를 把握하고 이는 國民經濟 가운데 水産業的 諸活動과 그들 相互間의 經濟的 諸關係의 總和로서 農業, 工業등의 諸産業과 더불어 國民經濟의 水産業의 側面을 形成하며 이러한 一特定部分으로서 國民經濟總體 안에 包含되는 것이라 論하고 있다. 이와 같이 水産經濟를 個別水産經濟내지 水産經營과 總體水産經濟로 理解하고, 前者는 意識的·計劃的·意思的 性質을 가지고 그 自身の 合理的 基盤위에 이루어지는 合目的的인 諸活動을 營爲하는 組織으로서 一般의 環境條件에 適合하게 適應함으로써 自身을 保存·維持하는데 水産經營學의 必要성과 可能性을 理解하고 있다. 그리고 總體水産經濟는 個別水産經濟와는 달리 無意識的·非計劃的·超意思的·自然必然的인 組織體로, 사람 個個人의 意思나 意識과는 遊離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전혀 無秩序한 것이 아니고 一定한 秩序가 있다는 意味에서 自然的 社會現象이며. 이 現象을 支配하고 있는 法則을 發見하고 이를 科學的 法則으로서 定立하려는데 水産經營學研究의 任務를 求하고 있다.¹⁴⁾ 이러한 두개의 水産經濟概念에 있어서 個別水産經濟 내지 水産經營과 總體水産經濟는 그 本質的 性格에

14) 岡本, 前掲書, pp. 32~45.

水産經營學의 對象規定에 관한 試論的 考察

있어서 서로 相反된 것임을 볼 수 있다. 前者가 意識的·合目的的 活動의 基盤위에 把握되는 規範的인 水産經濟인데 대하여 後者는 自然的 現象으로서 自然的 秩序에 의해 支配되는 因果論的 水産經濟이다. 여기에 岡本教授에 의해 個別的·規範的 水産經濟로서의 水産經營 概念이 把握되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規範」의 이라 함은 價値評價的 意味로서의 規範的이 아니고 實踐的으로 把握될 目的을 所與로 하고 그 實現을 위한 手段·方法을 追求한다는 意味에서의 經驗的·實在論的인 規範을 말하는 것이다.

伊豆川教授는 水産業이란 第一次産業인 漁業을 中心으로 養殖과 製造業을 包含한 産業이라 規定하고, 그 特殊性을 漁業의 危險性, 漁獲의 不安定性, 漁獲物의 腐敗性이라 하고 있다. 水産經營이란 이러한 不利點을 克服하여 安定性, 安全性을 確保하고 所期의 目的(經濟性的 貫徹)을 達成하려는 目的體로서 水産企業이라 理解하고 있다.¹⁵⁾

지금까지 考察한 三者의 水産經營에 대한 概念規定을 보면 張設鎬教授는 組織的 關係로서 水産經營을 把握하면서 그 內容으로서 水産業이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 水産資源을 目的對象으로 한 調達, 生産, 販賣등 一聯의 活動이라 하고 있다. 이러한 水産經營의 概念規定은 組織論的 理解態度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水産經營이 水産資源을 活動의 對象으로 調達에서 販賣에 이르는 하나의 組織關係로서 水産經營을 把握하려는 認識態度는 平面的·技術合理的으로 經營을 理解하는 것이며 利潤目的 追求體로서의 經營을 消極的으로 把握하려는 立場이라 할 수 있으며, 그리고 또한 資金·資材의 調達-生産-販賣의 흐름(flow) 내지 現象이 人間이 中心된 現象으로 위에서 말한 組織關係가 目的關係에서 보다는 社會的 關係로 把握되어 組織原則에 의해 組織合理的으로 이루어진 關係로 把握된 現象이 바로 水産經營이라는 것이 張設鎬教授가 水産經營學을 理解하는 態度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合目的的인 諸活動을 營爲하는 意識的·計劃的·意思的 組織으로서 水産經營을 把握하려는 岡本教授의 見解는 「個個의 水産業者는 一定한 目的을 세워 그의 實現을 企圖하여 水産業的 諸活動의 計劃을 定하고, 이에 따라 水産業을 持續的으로 營爲하는 組織을 만들고…… 一定한 合理的인 進行 順序下에서 그들의 水産業的 諸活動을 圓滑하게 遂行해야 한다」¹⁶⁾는 水産經營의 內容規定은 個個의 水産業者에 의한 一定目的의 設定·達成, 計劃樹立이라는 水産業者가 따라야 할 行動規範을 強調하고 있다는 點에서 前述한 바 實踐規範的인 概念規定이라 理解하고자 한다.

그리고 伊豆川教授에 의한 水産經營의 概念規定에 있어선 經營의 目的을 經濟性的 貫徹이라 規定하고 있다. 따라서 이 經濟性(Wirtschaftlichkeit)을 어떻게 理解하느냐에 따라 伊豆川教授에 의한 水産經營概念의 性格이 規定될 것이다. 그는 H. Nicklisch의 見解에 따라 經營의 目的은 營利性이 아니고 經濟性的 實現에 있고 最少費用의 原則이 人間の 合目的性에 適合할 뿐 아니라 經營體를 存續시키는데는 適正한 分配가 이루어져야 하고 經營活動은 利潤이란 觀點이 아니고 社會的 效果를 어떻게 舉行할 것인가라는 良心에까지 關聯된다는 觀點에서 經營과 經濟성을 把握하고 있다. 이러한 立場은 規範的·評價的인 水産經營의 概念規定이라 할 수 있다.

以上에서 본 바, 組織論的, 實踐規範的 그리고 規範的·評價的인 세개의 水産經營概念規定은 水

15) 伊豆川·三島·大海原, 前掲書, pp. 17~30.

16) 岡本, 前掲書, pp. 33~34.

産經營이 現實이라는 基盤위에 現實的으로 存在·存續하고 있다는 事實을 積極的으로 認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三者 모두 水産經營을 企業 내지 個別水産經濟라 規定하나, 이가 우리社會에서 體制關聯的 存在임을 그 根源에서 把握하려 하고 있지 않다. 換言하면 張設鎬教授는 管理過程의 連續的 흐름을 組織的으로, 岡本教授는 規範的이면서도 營利性을 顯在的으로 把握하지 않고 潛在的 내지 「經濟性」의 立場에 서있으며, 伊豆川教授는 Nicklisch의 즉 價値評價的 立場에서 水産經營을 理解하려 함으로써 利潤追求體로서 水産經營의 營利性을 前面에 浮刻시키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水産業의 産物은 現在의 經濟體制下에서는 商品으로 生産되고 있다는 것이 他의 一次産業인 農業과 相異한 點이다. 農業에 있어선 消費用 특히 農家經營에 있어선 自家消費가 主目的인 生産을 營爲하는 比重이 큰 경우가 있는데 대하여 水産業은 비록 漁家經營이라 하더라도 自家消費가 아닌, 販賣目的인 商品으로서 生産함은 恒常的 事實이다. 農水産物의 主된 費消對象領域이 食糧領域이나 食糧領域에 있어 農産物 (특히 穀物)이 中心的인 位置를 占하고 가장 「緊要한 食糧領域」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비하여 水産物은 緊要한 食糧領域을 補完하기 위한 手段으로서 生産되어 왔다는 事實이 水産物生産이 本來 歷史的으로 商品生産의 性格을 갖는 緣由라 하겠다. 더구나 經營은 그가 存在하고 있는 社會經濟體制에 의해 規制받는 것으로 經營에 의한 生産活動이 社會體制를 떠나 論議될 性質의 것은 아니라 생각된다. 여기에 經營 내지 水産經營을 社會經濟體制와의 結合에 의해 考察해야 할 當然性을 認識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우리는 E. Gutenberg의 經營과 企業에 대한 概念規定을 考慮하지 않을 수 없다. Gutenberg는 體制無關聯的인 經營으로 經濟性原則과 財務的 均衡維持原則에 의한 生産諸要素의 結合을 把握하고, 이러한 經營이 自律原則, 單獨決定의 原則 그리고 營利經濟的 原則과 結合되었을 때, 自由主義的 資本主義經濟體制에 特徵的인 經營을 把握하고 있다.¹⁷⁾ 前者가 商品의 生産過程 自體로서의 經營을, 後者가 資本主義經營으로서의 經營 즉 企業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經驗하고 있는 經營은 營利性을 追求하고 있는 過程에서 經濟的인 生産活動을 營爲하고 있는 經營 즉 資本主義經營인 企業이다. 우리가 여기서 理解하고자 하는 水産經營도 이와 같은 意味의 經營으로 體制原理인 營利性原理를 本質的 形成要素로 水産業의 環境的 特質에 의해 危險性, 移動性, 生産物의 腐敗性등 生産過程의 特質을 克服하고 營利性을 實現하기 위한 意識的·計劃的 諸活動을 經常的 形成要素로 自己存續을 꾀하는 組織體가 水産經營이라 理解해야 할 것이다.

三. 經營學의 研究對象에 대한 吟味

앞서 말한 독일에 있어서의 私經濟學方法論爭은 바로 經營學의 研究對象에 관한 論爭이라 할 수 있다. 水産經營學이 經營學에 대하여 部門 혹은 特殊經營學으로서 一般과 部門 내지 特殊의 關係를 形成하고 있는 이상 經營學의 研究對象을 規定하고, 水産業 내지 水産經營과의 關聯에서 水産經營學의 研究對象을 規定함이 論理的이기 때문에 많은 學者에 의해 試圖된 經營學의 研究對象에 대한 論議를 吟味코자 하는 바이다.

독일經營者에 있어서 經營經濟學의 對象規定 내지 學派分類에 관한 代表的 研究로 F. Schönplflug

17) E. Gutenberg, "Einführung in die Betriebswirtschaftslehre," Wiesbaden, 1975., pp. 189~191.

水産經營學의 對象規定에 관한 試論的 考察

에 의한 研究를 든다. 그는 經營經濟學을 規範的 經營經濟學(規範論學派), 技術論的 經營經濟學(技術論學派), 理論的 經營經濟學(理論學派)로 區分하고 있다. 이 세學派의 代表的 學者인 H. Nicklisch, E. Schmalenbach, W. Rieger에 의한 經營經濟學의 研究對象에 대해 吟味하여 보자.

Nicklisch에 있어서 經營經濟學의 認識對象에 대한 考察은 三段階의 展開過程을 거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첫단계에 있어서 Nicklisch는 經營經濟學의 認識對象을 「節約經濟 내지 家計經濟」와 區別되는 것으로서, 經濟的 欲望의 充足에 協力하고(國民經濟的 目的) 利潤을 獲得하는(私經濟的 目的) 「營利經濟 또는 收益經濟」인 企業이라 하고 있다. 이때 私經濟의 企業性如否에 대한 規定은 一定한 外的 事實이 의해 正해지는데, ① 肢體화된 業務組織體가 存在하는 경우, ② 資本과 勞動力에 대한 需要에 대해 表現되는 一定規模를 營利經濟가 갖는 경우, ③ 外部에 대하여 一定한 經濟的 그리고 法律的 形態로 나타내는 경우가 企業이라 하고 있다. 두번째 단계에 있어서 Nicklisch는 企業概念을 經營概念으로 바꾸어 놓고(企業 즉 經營) 經營經濟學의 對象으로서의 企業本質을 一義的으로 規定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企業은 分業的 流通經濟에 있어서 消費者로서의 人間과 生産者로서의 人間사이 존재하는 分離를 有機的·統一的으로 連續시키기 위한 것이 欲求充足을 內容으로 한 經濟이며 이를 위한 機關인 것이다. 그리고 可能한 欲求充足經濟의 諸形態의 하나가 資本主義的 流通經濟에 있어서의 營利經濟이며, 이때의 指導原理은 利潤原則이 아닌 經濟性이라 Nicklisch는 말하고 있다.¹⁸⁾ 즉 企業이란 經濟性을 指導原理로 消費者와 生産者사이를 有機的·統一的으로 結合시키는 營利的 欲求充足經濟의 機關이나, 앞서 말한 바 經濟過程을 둘러 싸고 있는 外形의 形式이고 이 形式에 投射된 內容이 經營이다. 즉 이러한 外形의 形式의 內容을 統一的으로 把握함으로써 企業 즉 經營이 成立되는 것이라 理解된다. 세번째 단계에 있어서 經營을 지금까지와 같이 企業에 限定시키지 않고 家計經濟도 包含하며, 勞動場所에 있어서 道具와 材料를 具備하여 欲望充足을 위해 設定된 目的 實現을 위해 活動하고 있는 人間이 究極的인 單位에 있어서의 經營이라 하고 있다. 經營經濟學의 認識對象인 이와 같은 經營은 經濟單位의 生活이고 個別經濟와 經營經濟는 同一概念으로 파악되며 여기에 이르러 企業概念을 驅逐하여 包括的이고 普遍的인 個別經濟學으로서의 經營經濟學의 確立을 企圖하고 있다.¹⁹⁾ 이상에서 Nicklisch는 처음 經營經濟學의 對象으로 「企業」을, 다음은 「企業 즉 經營」을, 그리고 個別經濟의 全單位를 受容하는 「經營」을 規定하고 그의 指導原理를 經濟性의 原理에 求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經營은 究極的인 組織單位體인 經營이 高次의 單位體에 統合함으로써 共同的으로 設定된 目的을 共同으로 實現하는 經營共同體를 生成하나, 本源的인 經營單位體의 性格은 原理的으로 變化하는 것이 아니며 自由의 法則 즉 公正의 法則에 의해 個個의 人間은 共同體의 肢體로서 經營의 全體給付에 대해 個人分配에 相當한 價値額 만큼 分配를 받는 規範的 經營이라 規定하고 있다.²⁰⁾

다음 技術論學派의 Schmalenbach는 個別的인 諸問題의 同一性에서 科學의 同一性이 成立한다는 論理에서 出發하여 國民經濟學과 經營經濟學의 經驗對象은 原理的으로 同一한 것 즉 經濟이기 때문

18) Nicklisch에 있어서 營利追求와 利潤追求는 別個의 것으로 營利한 結果 또는 結果分配의 授受를 위한 交換手段의 授受에 의한 欲求充足이라 理解하여 利潤과 區別하고, 이와 같은 經濟에 대한 全企業의 統一的인 同一한 土臺가 經濟性이라 하고 있다. (Schönpflug, 前揭譯書, p. 153 參照)

19) Schönpflug, 前揭譯書, pp. 148~156.

20) Schönpflug, 前揭譯書, pp. 189~190.

에 經驗對象에 의해서 兩者間의 相異性은 確認할 수 없다고 論하고 있다. 여기에 하나의 科學으로서 經營經濟學이 科學이기 위해서 經驗的인 經濟의 한 特殊한 側面을 認識의 客體로 할 必要가 있으며, 이것이 다름 아닌 計劃的인 價格策定の 現象 즉 一定 所與의 事情下에서 特定生産物의 生産을, 따라서 一定價格의 位置設定을 처음으로 이끌어 가는 바의 考量과 措置의 全體인 것이다. 이때 價格은 原價와 給付의 確固한 尺度가 되고 經營經濟學의 範圍를 境界지우는 決定的인 重要性을 갖는다고 한다. 여기에 經營經濟學이 問題로 하는 것이 價格이란 大量現象의 全體的 傾向의 確認이란 國民經濟學의 立場과는 달리, 앞서 말한 計劃的인 價格策定이란 大量現象이며 이러한 問題領域은 可能한 좋은방법으로 經營의 經濟性을 促進하는 實踐的 目標을 갖고 經營計算이 이에 대한 諸問題를 展開하고 그리고 經濟性은 經營計算制度에 의해 評價되는 利益이 尺度가 된다고 하고 있다(收益性에 의한 經濟性의 表現). 이는 利益의 絕對額 보다는 一般的 經營發展에 대한 相對的 關係를 重要視하는데 緣由하는 것으로 Schmalenbach는 보고 利益의 原因으로 다음을 열거하고 있다. ① 全體經濟에 있어서 하나의 全體로서의 企業의 有用성과 稀少性이며, 全體經濟의 構造變化는 個別經濟單位가 行하는 評價에 變化를 招來하고 評價의 變化는 收益力의 變化를 同伴한다. ② 景氣의 上昇·下降 또는 季節이나 流行에 의해 일어나는 收益變動으로, 經濟의 變轉에 대한 戰術的 適應을 要求한다. ③ 節約과 慎重, 勤勉과 熟練의 結果 즉 計算技術上 經營方法이라 불리어지는 것등이다. 이러한 經營計算에 의한 利益의 把握對象은 Schmalenbach에 의하면 研究의 重點이 商事的 工業經營에 있었고 이에 限定된 意味의 「企業으로서의 經營」이 經營經濟學의 認識對象인 것이다. 그리고 利益이 存在하기 전에 價値產出의 經濟性은 存在하는 것이고, 따라서 市場에 있어서 實現된 利益엔 經濟性은 反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Schmalenbach에 의해 測定되는 經濟性은 經營의 收益性이란 批判的 主張을 보기에 이른다.²¹⁾ 이상에서 Schmalenbach가 그의 經營經濟學에서 研究對象으로 하는 市場經濟를 前提로 國民經濟의 構造的 變化에 의한 企業評價, 市場變動에 대한 戰術的 適應, 그리고 管理技術의 合理性의 實現을 위해 利益實現을 中心的 課題로 目的合理的·技術合理的으로 適應하는 企業이며 이 企業은 經濟性이 아닌 收益性 내지 營利性을 指導原理로 하는 것임을 理解하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 본 經營經濟學 研究對象에 대한 規範論學派와 技術學派의 見解에 대하여 理論學派의 見解를 W. Rieger에 따라 吟味하기로 하겠다. Rieger는 分業을 통해 相互依存하는 個別經濟의 結合이 市場에 의해 이루어지는 資本主義經濟體制를 方法論的 論究의 背景과 出發點으로 하고 있다. 市場結合에 의해 形成된 資本主義經濟는 交換可能한 모든 財貨가 通分되는 統一分母인 貨幣에 의한 價値計算에 의해 財貨量이 抽象的 價値量으로 變化되고, 이때 市場價格은 客觀化된 價値로서 個人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主觀的 價値評價를 克服하고 있으며, 이러한 貨幣經濟의 단계에 있어서 經濟思考는 貨幣思考와 同一한 것으로 貨幣를 위해 經濟活動을 하게 되고, 資本主義가 그 經濟思想을 實現하기 위한 原型物이 企業이며, 이 企業이 經營經濟學의 認識對象이라고 Rieger는 말하고 있다. 企業의 根本問題는 貨幣에서 再次 貨幣 즉 所得(利潤)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그 存續의 過程에서 生産目的은 몇번이고 변경할 수 있으나, 經濟的 活動目標은 결코 변경시킬 수 없는 것으로 生

21) Schönplflug, 前掲譯書, pp. 231~249.

産目的을 위한 技術的 行爲는 目的(經濟的 活動目標, 즉 貨幣所得=利潤의 獲得)에 대한 手段이라 Rieger는 理解하고 있다. 환언하면 企業의 經濟的 合理性이란 收益性を 말하며 이 經濟的 合理性을 實現하기 위해 技術的 經濟性を 利用하게 되고 이때 企業家의 行動은 經濟적으로 最大의 利潤을 낚는 給付 뿐인 것이다. 그리고 이 給付는 가장 節約적으로 生産된 給付가 아니라는 것이다.²²⁾ 이상에서 우리는 Rieger에 의해 理解되고 있는 經營經濟學의 研究對象은 「經濟的 合理性」즉 營利性을²³⁾ 指導原理로 하는 企業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독일에서 論議된 經營經濟學의 研究對象은 規範論學派의 經濟性を 指導原理로 하는 「經營」과 營利性(收益性)을 指導原理로 하는 「企業」을 研究對象으로 하는 技術論學派와 理論學派로 나누어 지고, 그리고 後者인 兩學派 사이엔 營利性を 指導原理로 하는 企業이라는데 共通點을 볼 수 있으나, 技術論學派가 「理論的 考察은 결코 自己目的이 아니며 制度가 갖는 經營의 測定裝置, 實踐的·組織的 問題의 보다 좋은 克服手段에 不過하다」²⁴⁾는 意味에서 目的論的 接近方法(技術論的 接近方法)을 採擇하고 있는데 대하여 理論學派는 「私經濟學의 方法論의 主要原則은 原理上 沒價值的 이어야 하며……經濟에 있어서 典型的인 利潤追求가 어떠한 動機에 起因하는 가는…… 私經濟學이 顧慮할 수 없다」²⁵⁾는 立場과 私經濟學의 課題는 「物自體로서의 研究와 理論」²⁶⁾이라는 Rieger의 認識態度에서 因果論的 接近方法을 取하고 있는데 差가 있다. 그러나 三學派의 見解는 研究對象의 同一性如否에 따라 藻利教授는 「企業」을 對象으로 하는 企業論學派와 「經營」을 對象으로 하는 經營經濟學派로 兩分하고 있다.²⁷⁾

지금까지 考察한 바 經營學의 研究對象에 대한 獨逸的 對象論議와 比較할 만한 美國的 論議는 볼 수 없는 것이 美國經營學의 事情이라 하겠다. 이것은 「美國의 諸經營理論이 對象을 明確히 하는 것에 그다지 注意를 集中시키지 않고 概念規定의 嚴格한 利用도 하고 있지 않다」²⁸⁾는데 由來하는 것이다. 이러한 事實은 “management”란 用語의 多樣性에 의해서 充分히 理解되는 바이다. Drucker는 “management”의 用語는 “work”(일), the organ(機關 즉 組織의 活性的, 積極的, 動態的 機關) “discipline”(學問), “social function”(社會的 機能), “tasks”(課業), “people”(人間……經營者를 뜻함)²⁹⁾ 등의 여러가지 意味를 가지고 多中心的(polycentric)으로 使用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의 關心事가 되는 것은 discipline으로서의 management인데 Drucker는 management를 專門分科學 내지 個別科學으로 規定하고 management는 學問으로서 自身の 獨特한 研究方法(approach)과 特有의 問題領域(distinct concerns)을 가지며, 또한 科學(science)이기 보다는 實踐(practice)이라 理解하고 있다.³⁰⁾ 이러한 management에 대한 Drucker의 見解는 純粹科學(pure science)도 哲學的·綜合的 學問도 아닌 特定한 對象에 대한 特殊한 實踐的 知識體系인 專門科學으로서 management를 規

22) Schönplflug, 前掲譯書, pp. 326~330.

23) 여기에선 營利性和 收益性を 同一한 것으로 把握함.

24) Schönplflug, 前掲譯書, p. 231.

25) Schönplflug, 前掲譯書, p. 331.

26) Schönplflug, 前掲譯書, p. 332.

27) 藻利重隆, 「經營學의 基礎」(新訂版), 森山書店, 1975. pp. 33~41.

28) 中村常次郎(編), 「現代經營學說」, 有斐閣, 1980. p. 3.

29) P. Drucker, “Management—Tasks, Responsibilities, Practices—”, Heinemann, 1974, pp. x~xiii.

30) Drucker, ibid, p. 17.

定하려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機關 혹은 組織으로서의 management는 社會的 制度(social institutions) 특히 企業(business enterprise)의 리더십(leadership)·管理(directing)·意思決定(decision) 機關이며, 諸國家社會에서 同一한 基本的 課題(the same basic tasks)에 直面하는 바 本源的 機能(genetic function)이고, 또한 management는 J. B. Say가 말하는 企業家(entrepreneur)일 뿐 아니라 最大의 成果를 위한 狀況(vision)과 資源의 管理에 責任을 지는 存在라는 諸規定이 있다. 이 가운데 學問으로서의 management가 여기에서 우리가 뜻하는 對象·內容의 規定과 一致하는 것으로,³¹⁾ 여기에 management는 組織의 最大成果의 達成을 指導原理로 普遍的 機能으로서 諸資源 내지 環境 管理를 內容으로 하는 實踐的 知識體系인 學問이라 規定되며, 企業의 管理學으로서의 經營學이고 그 研究對象은 組織一般(institutions)을 말하나 實質的으로 企業(business enterprise)에 한정시키고 있다는 데서 企業에 抽象化된 研究對象이 把握되는 바이다.

이상에서 經營學의 研究對象은 企業 혹은 經營일 것이다. 經營學이란 學問의 形成이 독일에 있어선 商業學(Handelswissenschaft)을 前史로 하고 있으나, 1898年 Leibzig에서의 商科大學 設立을 契機로 商工業都市에 연이어 商科大學이 設立되고 研究對象이 營利追求組織인 私經濟였다는 事實과, 美國經營學이 19世紀末 東部地域의 金屬製造業과 金屬加工業의 諸企業間에 일어난 競爭의 激化로 인한 原價切減의 必要性 그리고 技術發達로 인한 製造現場組織의 調整의 必要性 등이 關心의 對象이 되어 發達된 諸管理論에 그 生成의 契機를 찾을 때, 經營學은 本源에 있어서 資本主義經營인 企業을 對象으로 生成하였고 그 理論이 企業의 指導原理인 營利性原則을 一義의인 것으로 受容하는 實踐的 學問이었다는 것은 쉽게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 學問이 發達過程에 있어서 學問이 存在해야 할 當爲相으로서 沒價値性 혹은 公共性이 強調된 나머지 理論의 내지 規範論的 經營學이 形成되고 또한 經營의 諸理論이 企業以外的 組織 내지 他個別經濟에 그 有效性이 認定되고 適用됨으로서 經營理論이 企業經營理論의 領域을 벗어난 것이 오늘의 經營學의 事情인 것이다. 企業이 社會的 形成體인 以上 그 公共性은 本來的으로 具有하지 않고는 存續할 수 없으며 또 學問이 普遍妥當한 科學性을 가질 때 學問으로서의 普遍성과 永續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經營學이 營利目的合理的 企業實踐을 위해 生成했다는 事實을 생각할 때 그 實踐性을 本質的 屬性으로 하지 않는 이상 生來的으로 그 存立因을 喪失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經營學의 沒價値性이나 公共性 내지 規範性은 實踐性을 追求하고 本質的 屬性으로 하는 한에 있어서 그리고 實踐性에 대하여 有用性을 갖는 한에 있어서 問題되어야 할 것으로 理解코자 하는 바이다. 그리고 企業經營理論으로서의 經營學이 他組織에 그 有效性이 認定된다는 것은 他組織의 經營理論이 企業經營理論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經營學과는 別個의 學問으로서 他組織을 위한 行政學, 學校經營論, 軍隊行政(論)등이 獨自의 對象을 갖고 形成되고 있다는 事實은, 經營學은 企業을 對象으로 한 知識體系이어야 하는 當爲性을 示唆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오늘날 經營學의 이름에 의한 研究가 企業을 實質的인 對象으로 하고 그리고 Schmalenbach가 經營經濟學의 研究對象을 企業에 限定시키지 않고 廣範한 經營概念을 採用하나 結局에 있어선 「企業으로서의 經營」에 歸結되었다는 事實에서 充分히 理解할 수 있다.

여기에 經營學 形成의 歷史的 事實 그리고 經營學의 이름에 의한 研究實體에서 經營學의 研究對

31) Drucker, ibid, p.17.

象은 資本主義體制原理를 內在原理로 하여 存在하는 企業이라 規定하고자 한다. 이러한 企業은 水産經營學에 있어선 어떠한 意味內容을 가지는 것일까?

四. 研究對象의 抽象化와 水産經營學의 研究對象

經營學과 經濟學은 그 經驗對象을 같이 하면서도 認識對象을 달리함으로써 各其 獨立된 學問으로서의 位置를 確立하게 되었다. 이렇듯 獨自의인 認識對象을 갖는다는 것은 他學問과 區別되는 標識을 가짐을 뜻하는 것으로, 標識은 때에 따라 觀點의 差일 수도 있고 社會的, 心理的 또는 政治的일 때도 있음을 意味하는 것이라 하겠다. 企業을 對象으로 하면서 經營學以外에 經營社會學, 經營心理學, 經營史學 등등 經營關聯諸科學이 있게 되는 緣由인 것이다. 이러한 諸學問은 經營學과는 그 學問的 本質을 달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經營學이 資本主義의 本質原理인 營利性原理에 의해 管理되는 企業이 對象이고 이 企業의 活動에 의해 現顯하는 經營現象인데 대하여 위의 諸關聯科學의 觀察領域은 企業活動의 社會學的, 心理學的, 歷史的 諸側面으로 社會學, 心理學, 史學의 領域에 歸屬된 性質의 것이며 社會學, 心理學, 史學과 同一性(identity)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水産經營學은 經營學과 學問的 同一性을 같이 하면서 「水産」이란 形容詞로 因해 水産業의 經營學的 側面을 觀察領域으로 하는 學問이라 規定지우고자 한다.

經營學의 研究對象을 企業이라 規定할 때 이 企業이 모든 企業을 指稱하고 있을 때 비로소 理論上 對象으로서의 妥當性을 갖게 된다. 이것은 學問의 普遍性에 緣由하는 것으로서 理想으로 하는 바이다. 그러나 오늘날 經營學에 의해 論議되는 觀察對象이 모든 企業을 網羅할 수 없음은 嚴然한 事實이고 抽象化의 過程으로 企業이란 이름에 의해 特定部類의 企業의 對象이 되고 있음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다. 이와 같이 抽象化된 企業은 認識對象으로서의 標識을 適合하게 그리고 特徵적으로 具有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Drucker는 現代産業國家(industrial country)의 重要한 形成要因을 enterprise에 求하고 이의 性格을 決定的·代表的·構造的 制度(the decisive, the representative and the constitutive institution)라 規定하고, 또한 the industrial enterprise라는 概念을 導入하며 이 組織은 自律的 制度(an autonomous institution)이고 國家에 의한 創造物(a creative of the state)도 아니며 所有와 管理의 分離에 의해 把握되는 組織이라 規定하고 있다.³²⁾ 여기에서 把握되는 the industrial enterprise는 Gutenberg에 의해 언급된 企業(Unternehmung)에 가까운 것으로 理解된다. 그리고 Drucker는 앞서 말한 바 management를 定義지우는 過程에서 社會的 制度의 代表的인 것으로 business enterprise를 把握하고 이의 分析對象으로 “Sears, Roebuck & Company”, “Ford Motor Company”,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IBM)” 등 大企業을 擇하고 있다. 이러한 一聯의 事實에서 보면 enterprise, industrial enterprise, business enterprise는 同一概念이나 다만 對象의 內容·特質을 組織, 産業, 혹은 營業이라는 觀點에서 規定지우고자 할 때 相異한 用語使用이 行해진 것으로 理解되며 이들 諸概念은 우리는 資本主義經營인 企業으로 單一規定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大企業에 抽象化된 Drucker의 分析對象을 理解할 수 있다. 그리고 小規模企業에 대한 研究은 오늘날 「經營學」과는 別途로 中小企業經營論 혹은 中小企業論이란 獨自의인 研究領域을 區劃하고 있는 것이

32) P.F. Drucker, “The New Society”, Harper & Row, 1950, p. 27.

수 산 경 영 론 집

學界의 實情이다. 이러한 事實은 經營學이 學問的인 體系化를 企圖하는 過程에서 特徵的·代表的인 對象의 把握과 對象의 抽象化에 대한 可能性을 大企業에서 求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Drucker가 말하는 바 企業(enterprise)은 現代産業社會에서 決定的·代表的·構造的 制度이며 分析對象을 大企業에서 구할때 可能한 것으로 理解된다. 이와 같은 立場에서 볼 때 水産經營學의 對象把握은 經營學의 對象基準에 따를 必要는 없고, 다만 水産經營 내지 水産企業의 經營現象을 가장 適切하게 代表的으로 觀察可能한 對象規定이 要求된다. 이것은 研究對象內容의 眞僞의 判定을 檢證可能性(verifiability)가 아닌 確證可能性(confirmability)에 求하려는 것이고, 이課程을 對象의 抽象化過程이라 理解하고자 하는 바이다.

우리는 앞서 水産業이란 水界에서 漁業을 本體로 自然的 條件으로 인하여 不確實性, 不安定性, 危險性이 많고 商品 適性이 劣等한 一次産業이며 이러한 産業에 대하여 營利性原則을 指導原理로 經營하는 個別經濟體가 水産經營이라 規定한 바 있었다.

第二次 어업센서스(1980年 제2차 總漁業調查報告)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135,241個의 水産經營體(個別漁業經濟體)가 存在하고 있다. 이 가운데 個人經營體 134,109業體(99.16%), 會社經營體 125業體(0.09%), 共同經營體 978業體(0.74%), 團體·研究機關 29業體(0.02%)로 數에 있어서 個人經營體가 壓倒的으로 많다.³³⁾ 水産業의 本體를 이루고 있는 漁業에 있어서의 漁業別·經營體別 構成을 보면 <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個人經營體가 99.03%, 會社經營體가 0.13% 共同經營體가 0.82%, 단체·연구기관이 0.02%이고 漁業別分布狀況은 漁家(個人)經營體가 全業種에 걸쳐 高루

<表-1> 經營體別 漁業經營體數

漁業種別	원양	포경	저인망	선망	부망	유자망	인망	채낚기	연승
個人經營體	18	15	938	144	2,941	12,764	313	10,550	8,331
會社 "	75		6	9			1	1	1
共同 "			3		5	4		12	2
團體·研究機關	1		3			2		2	
計	94	15	950	153	2,946	12,770	314	10,565	8,334

漁業種別	통발	정치망	잠수기	1중공동	2중공동	3중공동	기타	計(%)
個人經營體	2,174	2,369	1,085	23,863	206	2,982	9,514	78,207(99.03)
會社 "	1	2					5	101 (0.13)
共同 "		65	1	526	5	22	3	648 (0.82)
團體·研究機關				1	2	1	6	18 (0.02)
計	2,175	2,436	1,086	24,390	213	3,005	9,528	78,974(100.00)

33) 本論文에서 水産經營學體를 말할 때 「個人經營體」「會社經營體」의 用語는 水産統計에서 利用되고 있는 用語이며 그 經營實體와는 相異한 경우가 많다. 統計上 個人經營體도 實은 會社經營의 形態를 取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여 둔다.

水産經營學의 對象規定에 관한 試論的 考察

分布하고 있으며, 단체·연구기관의 分布相 또한 網漁業, 釣漁業 그리고 共同漁業으로 漁業을 크게 分類하여 보면 어느 程度 高루 分布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會社經營體는 遠洋漁業에 75%가 集中되어 있으며, 共同經營體는 95.4%가 定置網漁業과 共同漁業 즉 操業場所가 技術的으로 一定場所에 限定된 靜止的 漁業에 分布되어 있다. 이상에서 본 漁業經營體 가운데 水産業 내지 漁業의 特徵을 決定的(decisive)으로 나타내고 代表(representative)하며 또한 中心的인 構成(constitutive)을 形成하고 있는 漁業經營體는 어느 것에 求해야 할 것인가를 吟味할 必要가 있다. 資本主義經營의 代表的 經營體로 우리는 會社經營體 특히 大規模會社經營體를 對象으로 하는 것이 一般이다. 앞서 指摘한 바와 같이 Drucker가 分析對象으로 Sears, Roebuck & Co., Ford Motor Co., IBM 등을 擇한 것도 이들 大規模企業이 産業社會의 中心的 構成體로서 企業一般을 代表하고 産業社會에 대해 決定的인 役割을 遂行하는 것으로 産業經營을 特徵的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緣由하는 것이며, 經營學의 內容이 그리고 管理過程에 대한 諸分析이 主로 製造業의 企業體를 對象으로 行해지고 있는 事實도 이와 같은 事由에 근거하는 것이다. 이러한 論理에 直線的으로 따르면 水産經營學의 對象은 遠洋漁業을 主로 經營하고 있는 會社經營體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表-2>에서 漁船漁

<表-2> 漁船規模別 漁業別 經營體數

規模	漁業	원 양	포 경	저인망	선 망	부 망	유자망	인 망	채낚기	연 승
	2천미만	4		54	10	182	2,090	8	1,644	2,138
	2-5	1		257	33	874	2,371	5	1,570	2,364
	5-10			93	60	1,201	958	5	443	800
	10-20			116	14	120	963	46	501	524
	20-50		1	60	4	229	429	53	272	160
	50-100	4	11	182	4	356	147	60	151	26
	100-200	6		84	8	37	4	2	17	4
	200-500	78		13	13		3		8	3
	500-1,000	15								
	1,000천이상	33		1					1	
	計	147	12	960	146	2,999	6,965	179	4,607	6,019

規模	漁業	통 발	정치망	잠수기	1중공동	2중공동	3중공동	기 타	計(%)
	2천미만	1,106	120	200	1,477	61	338	1,342	10,774(30.24)
	2-5	1,155	211	430	1,830	67	612	1,582	13,362(37.50)
	5-10	323	121	32	426	21	96	518	5,197(14.59)
	10-20	253	65	12	305	13	20	423	3,375 (9.40)
	20-50	119	13	7	104	4	6	78	1,539 (4.32)
	50-100	46	7	1	10	1	4	16	1,026 (2.88)
	100-200	2	1		2		1	4	172 (0.48)
	200-500	3	1	1				4	127 (0.36)
	500-1,000								15 (0.04)
	1,000천이상				1			1	43 (0.12)
	計	3,007	539	683	4,155	167	1,077	3,968	35,680(100.00)

資料: 農水産部 第2次 總漁業調査報告 1980

※ 經營體數는 當該漁業에 實際로 參加한 經營體數임(主된 漁業이 아님)

業經營體의 漁船規模에서 볼 때 200屯以上 總經營體 185個體 가운데 會社에 의해 經營되는 遠洋漁業經營體가 132個體로 71.35%를 차지하고 있어 大規模水產經營은 遠洋漁業에 從事하는 會社企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水產經營의 代表的 經營體로서 遠洋漁業을 經營하는 會社經營體를 水產經營學의 分析對象으로 선택했을 경우 特定漁業에 置重함으로써 多樣한 水產經營의 全體像을 看過할 危險性을 內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換言하면 水產業의 特性을 決定的으로 代表하는 業種이라 斷定 지을 수 없다. 그리고 <表-2>에서 볼 때 100屯以下の 規模의 漁船漁業經營體는 遠洋漁業과 捕鯨漁業을 除外한 모든 業種에 類似한 規模別 分布傾向을 보이면서 分布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 規模의 業種은 거의 全部 個人經營體에 의해 經營되고 있다는 同一性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漁業의 主宗을 形成하는 沿·近海漁業經營體임을 생각할 때 構成的으로도 中心的 位置에 있다.

이러한 諸事實은 水產經營學의 研究對象인 水產經營 내지 漁業個別經營體는 그 分析對象을 主로 個人經營體에 의해 代表되는 漁船漁業經營體에 特性化시키고 이를 抽象化된 對象으로 理解하여 좋은 「길」을 열어 놓으려하는 努力인 것이다. 이것은 水產經營學의 研究對象을 漁家經營體에 規定했음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고 「水產經營」이란 概念이 漁家經營體의 經營狀況에 適合的이고 또한 여기에 그 經營의 普遍性을 特徵적으로 把握하고자 하는 意味이다. 이는 中小企業이 經營學의 研究 내지 分析對象에서 보다는 中小企業(經營)論의 對象으로 特化함으로써 (一般)經營學의 對象으로 除外된 것은 아니라 經營學의 研究對象에 대한 理念型을 大企業에 求하고 있다는 것과 同一한 論理에 由來하는 것이고, 漁家經營體가 水產經營學의 分析對象으로 特性化됨은 前述한바 Drucker의 意味에서 分析對象의 抽象可能性에 대한 積極的인 認識態度에 입각한 것이다.

五. 結 論

水產經營學의 研究對象으로 우리나라 水產業의 統計에 나타나는 個人經營體를 積極적으로 그리고 分析對象抽象化的 對象으로 積極적으로 導入의 妥當性을 推定한 바 있다. 이러한 對象推定方法은 經營學의 實質的 研究對象인 企業(主로 大企業을 指稱)과 比較할 때 우선 經營規模上 異質性을 認定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概念規定은 概念을 規定하게 된 事實을 無視할 수 없는 것이다. 大塚教授는 「우리들이 使用하는 諸概念이나 理論은 元來 限定된 歷史的 事實을 基礎로 構想된 것으로 恒常 어느 程度의 假說에 不過하며 따라서 또한 當然히 한층 더욱 豊富한 歷史的 事實에 의해 끊임없이 檢討되고 補完되어 再構成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³⁴⁾ 이것은 概念을 固定시킴으로써 일어나는 學問의 偏狹性 내지 硬直性으로 인하여 잘못된 假說로 事實을 曲解시킬 危險性을 指摘한 것이라 理解된다. 더구나 經營學은 企業으로 하여금 環境適應을 適切히 함으로써 「企業」을 實現시키기 위한 實踐科學이다. 水產經營學 역시 經營學의 本質的인 學問性格을 떠나서는 經營學일 수 없다. 換言하면 水產經營學이 經營學이기 위해서 그 對象으로 하는 바를 適切히 捕捉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解決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特殊經營學으로서의 水產經營學의 確立을 期待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水產業을 營爲하고 있는 經營體 가운데 經營學과 同一한 概念規定過

34) 大塚久雄, 『共同體의 基礎理論』(大塚久雄著作集 第7卷), 岩波書店, 1969, p. 5

水産經營學의 對象規定에 관한 試論的 考察

程을 適用시킴으로써 確立된 水産經營理論이 全般的·一般的 現實과 乖離되고 그 理論은 實踐性, 現實性을 喪失할 危險性을 意識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統計上 遠洋漁業에 優先되어 있는 大規模 經營인 會社經營體는 漁業對象의 特性化傾向이 濃厚하기 때문에 水産經營制度와 水産經營社會에 그 經濟的 優位性에도 불구하고 重要하며 決定的인 役割 내지 影響을 줄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會社經營體가 水産經營學의 研究對象에서 排除됨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다. 經營學에서 그 對象을 企業이라 規定하면서 實은 大規模이며 製造業分野의 企業이 對象으로 抽象化되고 中小企業은 企業經營의 特徵을 規定지을 때 重要한 機能을 나타낼 수 있는 한에 있어서 分析의 對象이 되어 重要한 對象役割을 하는 것과 같이 水産經營學에 있어서도 그 對象은 外延과 內包에 있어서 水産業의 特性이 容易하게 把握可能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水産經營學이 特殊水産經營學이 아니고 一般水産經營學 혹은 水産經營學一般으로서 定立되기 위해서 水産統計上의 會社經營體 보다는 個人經營體가 分析對象의 抽象化란 觀點에서 妥當성이 認定되어야 할 것으로 理解코자 하는바이다. 이것은 會社經營體가 水産經營學의 對象에서 除外됨을 意味하는 것도 또는 그 重要性이 減退됨을 意味하는 것도 아니고, 水産業 내지 水産經營의 個人 내지 漁業經營體에서 보다 特徵的으로 把握이 可能함을 意味하는 것이다. 여기에 特殊經營學으로서 水産經營學의 그 特殊的인 學問的 位置가 定立되는 것이라 理解코자 한다.

A Tentative Paper on the Object of Study in Fisheries Management

Ryong-Sik Khong

Summary

The dispute on the object of study in the business management have been carried out since 1912 in Germany, and then it is the situation of "business management" academic world there is no the confirmed object. But P.F. Drucker has prescribed the large enterprise as the object of his study of management, because the large enterprise it the decisive, the representative, and constitutive in modern industrial country. And it is usual that we would consider the large manufacturing enterprise as the object of study. But, in fisheries management, because large fisheries enterprises are almost attached too much to the pelagic fisheries, it is judged that they are not "decisive". And it is judged that they are not "representative", because the large fisheries enterprises can not sufficiently symbolize the managerial characteristic of fisheries industry. The coastal and inshore fisheries which constitute th real part of fishing industry have been operating by private enterprises which are small business in scale, so the large fisheries enterprises could not be considered "constitutive"

Therefore, the private fisheries enterprises is "decisive" because it is distributed in all most fisheries management, "representative" because it is exceedingly symbolize the managerial characteristic of fishing industry, and constitutive because it constitute the real part of fisheries industry.

From the above-mentioned, it could be concluded that the object of study is regarded the private fisheries enterprise as appropriate as long as it is engaging in producing fisheries product as good and conducts the pursuit of principle of profit maximization. Because the object of study can not include all the thing which has to be observed in order to study, the materialization of the object is actually necessary. And then as aforesaid we intend to realize the materialization through taking the private fisheries enterprise as the object in fisheries management theory.

And the materialization does mean a necessary process in choosing the object of analysis, but not the entity itself.